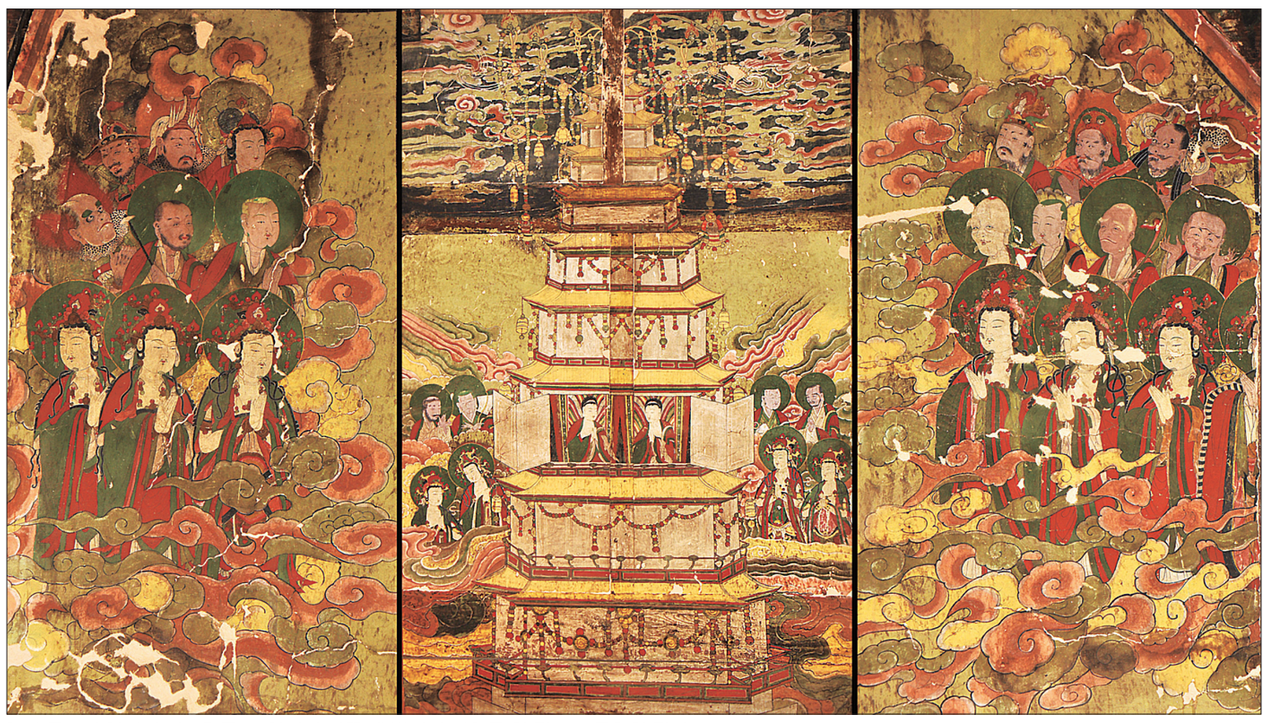
석가·다보여래 보배탑에 나란히 앉으시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⑪ 양산 통도사 영산전 견보탑품도



양산 통도사 영산전 견보탑품도. 영산전 서쪽 세 벽면의 벽화를 한 장으로 통합한 장면.

법화경 설하신 영산회상의 한 장면

불보사찰 통도사는 미술사적 시각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한국산사 벽화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영산전, 약사전, 용화전, 대웅전, 대광명전, 명부전 등 한국산사 사찰벽화 정수들이 빼곡하다. 안양암 북극전까지 포함하면 12곳의 불전 건축에 500여 점의 벽화가 분포한다.

특히 영산전의 벽화들은 불교 교의를 반영한 것으로 종교 장엄 미술의 교과서, 혹은 교본에 가까워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영산전에 펼쳐져 있던 부처님 생애의 일대기인 팔상도 불화와 법당 천정반자의 단청장엄까지 염두에 두면 영산전은 불화와 벽화, 단청을 집대성한 커다란 불교미술관과 다름없다.

법당 내외에 걸쳐 80여 점의 벽화가 있는데 그중 압권은 법당 내부 서쪽 벽면의 '견보탑품도(見寶塔品圖)'다. 보물로 지정된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견보탑품도로서 세로 400㎝, 가로 230㎝에 이르는 대형벽화다. 1716년 현판인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문'에 의하면 1713년 봄에 화재로 전소가 된 천왕문과 영산전을 1714년 영산전을 중건하고 1715년 화원 총안이 단청불사를 마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견보탑품도는 현판 기록을 참고할 때 1715년 무렵에 제작된 벽화로 추정된다.

견보탑품도는 보배탑을 본 경이로운 서사를 시각적 회화로 표현한 벽화다. 원 명칭은 〈법화경〉 '제11 견보탑품'에서 빌렸다. 즉 〈법화경〉 경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다. 법화경의 공간 무대는 인도 왕사성의 영축산이다. 줄여서 신령한 산 '영산(靈山)'으로 부른다. 석가모니불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한 성스러운 장면을 '영산회상'이라 하고 그 불화를 '영산회상도'라 부른다. 통도사 주산이 영축산이다. 〈법화경〉을 설한 영산회상 장면을 통도사 지상에 구현한 건축이 바로 영산전이다. 영산전은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 공간이다.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7권으로 엮었다. '제11품 견보탑품'은 제4권에 실려 있다. 견보탑품의 시작 대목이 신비하고 찬란하다.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七寶塔)이 하나 솟았다. 높이는 500 유순이고 너비는 250 유순으로 땅에서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탑은 가지가지 보물로 장식했으며, 5천의 난간과 천만의 방이 있으며, 한량없이 많은 깃발을 장엄하게 꾸미고, 보배 영락을 드리우고 보배 방울을 수없이 달았다. 탑 주변에는 그윽한 전단향이 세계에 가득한 가운데 탑의 꼭대기는 사천왕궁에까지 이르렀다."

1유순은 현대적 개념으로 13㎞ 정도다. 500유순이면 6000㎞가 넘는다. 거의 지구만 하다. 눈앞에 온갖 보배로 장엄한 지구만 한 탑이 공중에 떠 있는 놀라운 장면으로 서사는 시작한다. 벽화는 경전의 표현에 충실하다. 탑은 11층으로 높이를 극대화했다. 3층 감실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두 부처님이 합장한 모습으로 마주 보며 정좌해 계신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분의 부처님과 28명의 성중, 모두 30분이다. 28명의 성중은 보살 10분, 10대 제자, 범천1, 사천왕1, 팔부신중2, 금강역사2, 용왕과 용녀(또는 아사세왕과 위제희왕비) 등의 인물로 좌우대칭으로 구성했다. 영산회상도 불화와 같은 형식의 편재다. 이 성중들은 〈법화경〉 '서품'에서 열거한 성중들을 대표한다.

감실 내부는 두 분의 몸에서 나온 광채가 가득하고 탑 외부로까지 성스러운 빛이 발광하고 있다. 1층에서 5층까지 답신에는 금빛 지붕은 물론이고 보배 영락과 금빛 풍경을 장식하고 3층까지 연잎 조각으로 꾸민 하엽난간도 둘렀다. 탑의 상부는 오색구름과 영락, 풍경, 보석 구슬 드리개, 불꽃처럼 발광하는 보주들의 그물망 같은 천개를 드리웠다. 보는 이로 하여금 극적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탑은 경전의 표현대로 상서로운 오색구름과 그윽한 전단향에 휩싸여 있다.

다보불, 법화경 설법 자리에 상주증명

그때 보배탑 가운데서 큰 소리로 찬탄하는 음성이 들린다.

땅에서 솟은 칠보탑 벽화 통해
부처님의 상주설법 진리 증명
현존하는 국내 유일 견보탑품도
견보탑품도는 〈법화경〉의 변상도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대중을 위하여 평등한 큰 지혜로 〈묘법연화경〉을 설법하시나니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시는 설법은 모두 진실이니라."

법회에 참가한 성중들이 웅성거린다.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의 징조인가? 그때 대요설보살이 일체중생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칠보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며, 또 그 가운데서 찬탄의 음성이 나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다.

"보배탑 가운데는 여래의 전신이 계신다. 오랜 과거에 동방으로 한량없이 아득한 곳에 보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다보불(多寶佛)이 계셨다.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큰 서원을 세우셨다. '내가 만일 성불하여 멸도한 후 시방 국토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탑묘는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나타나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양하리라.' 대요설아, 지금 다보여래의 탑도 이 〈법화경〉을 들으려고 땅으로부터 솟아나 거룩하다고 찬탄하느니라." 대요설보살이 또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그 부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의 모든 분신불을 불러 팔금강좌에 앉히시고는 허공중의 칠보탑 문을 여셨다. 마침내 천만억 겁의 오랜 과거에 멸도하신 다보여래께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석가모니불의 거룩함과 〈법화경〉의 진리를 찬하면서 성중 앞에 나투셨다. 그때 다보불께서 탑 가운데 자리를 반 나누어 석가모니불께서 앉으시기를 권하셨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소서." '제11 견보탑품'의 이토록 극적인 이불병좌의 장면을 그린 벽화가 바로 통도사 영산전의 견보탑품도다.

일불승과 구원실성의 가르침

그럼 대체 보탑의 의미는 무엇일까? 〈법화경〉의 부처님 말씀 중에서 쉽게 믿기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보리수나무 아래서 무상정등각을 깨쳐 붓다가 된 일연의 서사가 모두 방편이라는 것이다.

"사리불아, 여래는 다만 일불승(一佛乘)만을 위하여 중생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2승이나 3승은 없느니라.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비유의 이야기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셨으니,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2500여 년 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랜 영겁의 과거에 이미 당신이 성불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 증거로 '제15 종지용출품', '제16 여래수량품'을 통해 입증한다. 범상치 않은 천만억 보살이 사바세계 땅속에서 나투어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린다. 미륵보살을 비롯해서 법회의 성중 모두가 놀라며 의심을 갖는다. 여태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저분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그런데 사바세계 보살이라고? 붓다께선 깨달음을 얻은 지 겨우 40년 지나는데 대체 저 수많은 보살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신 것일까?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분들이라 한다면 그것은 다섯 살 아이가 100살 먹은 노인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신다. "선남자여, 내가 성불한 지는 40년이 아니라 실상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다. 이미 영겁의 세월 전에 성불하여 저 천만억 보살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바세계에서 80년 삶을 살다간 부처님의 열반도 중생의 일불승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입멸하신 부처님께서 상주설법하신다고? 법화경에서 그 제법실상을 '견보탑품'을 통해 증명하신다. 바로 다보여래의 경이로운 상주증명을 통해 영원한 상주설법, 곧 구원실성(久遠實成)을 입증하신 것이다.

〈법화경〉의 핵심사상은 '제2 방편품'과 '제16 여래수량품'에 녹아 있다. '방편품'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일깨우는 '일불승' 사상이 녹아 있고, '여래수량품'에는 부처님의 본성인 '구원실성'을 밝혔다. 구원실성은 부처님의 영원한 상주불변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사바세계 출현은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 잠시 일대사인연으로 머문 방편일 뿐이다. 사실은 오랜 영겁의 과거에 이미 성불했으며,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드신 것도 방편으로서 진실은 시공을 초월하여 상주설법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런 부처님의 구원실성은 다보여래의 출현을 통해 증명된다. 다보불은 무한히 오래된 과거에 이미 멸도하여 사리탑 속에 봉안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놀랍게도 다보탑의 사자좌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법화경〉을 호념하며 그 진실의 증명으로 나투고 계셨기 때문이다. 수천억 겁 전에 입멸하신 줄 알았던 다보불께서도 구원실성으로 상주증명하고 계셨다. 그럼으로써 중생들을 성불의 한길인 일불승으로 이끌어 가신다.

따라서 칠보로 장엄한 다보탑의 출현은 〈법화경〉 사상의 정수를 시각적 변상으로 드러낸 것이며, 그 변상의 본질은 〈법화경〉 가르침의 핵심인 일불승과 구원실성, 그리고 신심 어린 〈법화경〉의 수지, 독송, 호념의 공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불의 길을 찾거든 저 '견보탑품'도 아래에 가서 부처님 상주설법 하시는 〈법화경〉 소리 들으시라.



노재학 작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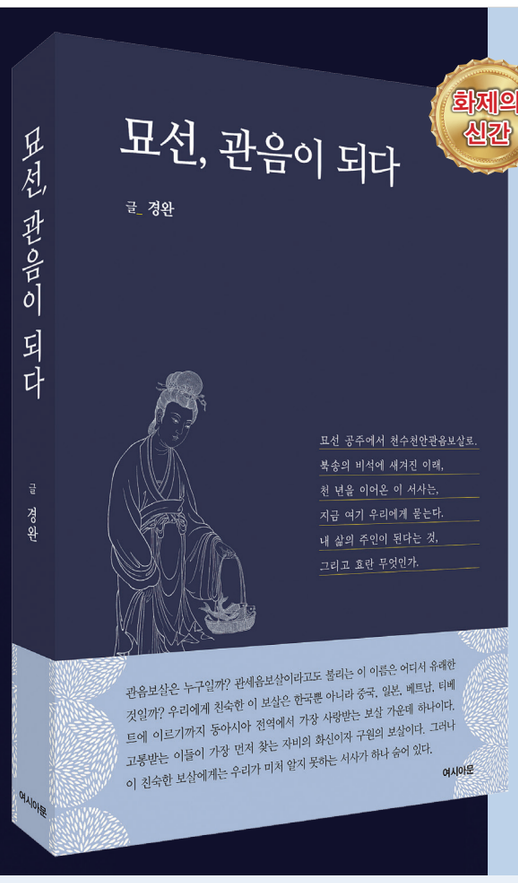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